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6차 지역옵서버제도(ROP) 작업반 회의 참석 결과

□ 개요

- (일시/장소) '25.6.20(금) 08:00~12:00(한국시간) / 화상회의
- (참석자)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뉴지, PNA, NGO 등 약 50명
- (개최배경) '24년 기술이행위원회('24.9) 및 총회('24.12)에서 지역옵서버가 수집하는 데이터 항목들을 검토하고, 이행평가* 시 활용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 요청되었음

* 이행사건 파일시스템(CCFS) 사건 등재 및 이행감시제도(CMS)에 의한 회원국 평가

□ 주요내용

1. 이행사건 파일시스템(CCFS) 과정 흐름

- 일본은 시기적절한 사전 통보가 이루어져야만 기국이 의미 있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고, 현재 CCFS 과정 상 기국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항만국 검색 및 공해승선검색 후 기국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에 비해 짧음을 언급하였음
- 마셜은 ROP 데이터를 CCFS 과정에 사용할 때 보다 간소화하는 접근을 지지하였고, 이를 위해 디브리핑 단계에서 옵서버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보고서 및 데이터들을 중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언급하였음

2. 데이터 항목 최소기준(MSDF) 개선

- 대만, 마셜 등은 자료에 대한 세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임을 언급하였음

- 중국은 1) 해양오염 조치(2017-04) 내 자발적인 사항들은 MSDF에서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음 (국내법상 미비되어 선박에 요구할 수 없음). 2) 바닷새 조치(2018-03) 내 토리라인 상공길이 측정 등은 옵서버가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움을 언급하였음
- 마샬은 1) 일부 항목들(유자망 금지, 데이터 부이 조업 금지, 어구분실 회수 노력 등)의 경우 사무국이 아닌 디브리핑 단계에서 또는 국내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지지하였음. 2) 선장 정보에 관한 항목은 옵서버 안전 이슈 발생 시 필요하므로 삭제에 반대하였으나 사무국은 선장 정보는 여전히 수집되고 있고 선장의 신원증명서, 여권 등을 수집하는 의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설명하였고 마샬도 수긍하였음
- 일본은 1) 옵서버의 항차 감시 요약(Trip Monitoring Summary)의 분량이 너무 길면 회원국이 모두 검토하기 어려움을 언급하였고 사무국이 자세히 검토하는 접근을 지지하였음. 2) 자발적인 사항들은 MSDF에서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음. 3) 조사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조치들을 우선순위로 할 것을 주장하였음
- SPC는 항차 감시 요약은 옵서버가 본 바를 기록하는 것이고 옵서버의 해석이나 평가가 들어가지 않음을 언급하였음
- 사무국은 일부 항목들의 삭제에 반대하는 회원국들이 있어 삭제 합의가 없는 항목들을 일단 모두 유지했으나 대부분의 제안된 삭제들에 대해서는 지지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였고, 아직 합의가 없는 항목들과 함께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질 것임을 언급하였음

3. 해상 전채 시 비어류 이전(non-fish transfer)에 관한 데이터 항목 신설

- 중국은 NPFC의 경우를 언급하며 수천건의 전채 보고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게 되면 사무국과 회원국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임을 언급하였고,

비어류 이전이 있었다는 것만 나타내야 하고 어떤 물품이 오갔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불필요함을 주장하였음

4. 향후 작업 일정

- 의장은 과학위에 제출할 MSDF 개정문서 및 ROP 작업계획 문서에 대한 최종 작업을 위해 추가 화상회의 개최가 필요하나 다른 회의 (JWG 등) 일정으로 인해 추가 회의 개최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회원국들의 의견을 받아 정리하는 접근을 제안하였음
- 회원국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본 회의 의장 요약본에 담겨서 회람될 예정임